

하세데라 절

하세데라 절의 창건은 도묘 쇼닌이 686년에 법화설상도를 만들어 덴무 천황(631~686년)의 병이 쾌유되기를 바라며 안치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세기에 도쿠도라는 승려가 쇼무 천황(701~756년)의 허락을 받고 727년에 십일면관음상을 조성하여 사찰을 개창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며 여러 차례 화재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하세데라 절은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습니다. 국보인 본당 등을 비롯한 혼보(本坊: 절의 본사), 니오몬 문(仁王門, 인왕문), 노보리로(登廊) 등 많은 건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은 일본 전국에 3,000개의 말사를 보유한 진언종 부잔과의 총본산입니다. 국보인 본당에는 높이가 10m를 넘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이코쿠 지역 33관음 성지 중 하나인 하세데라 절은 관음 신앙의 발상지로서, 그리고 꽃의 사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세데라 절은 훌륭한 보물 외에도 수많은 꽃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꽃의 사찰로 유명한 하세데라 절은 벚꽃과 모란, 석남, 수국, 진달래, 가을 단풍 등 수천 송이의 꽃으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하세데라 절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문화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노보리로 옆에 있는 한 그루의 매화나무는 기노 쓰라유키(872~945년)가 쓴 와카(和歌: 일본의 전통 정형시)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히토와이사/사람이란

고코로모시라즈/마음도 알 수 없지만

후루사토와/정든 그곳은

하나조무카시노/언제나처럼 매화꽃의

가니니호히케루/향기에 흠뻑 젖을테지